장양순 / 건축사사무소 동명건축, 본협회 이사, 한서대 겸임교수
by Chang Yang-Soon

독도 집짓기 운동을 시작하며

On Commencement of House-Building Movement in Dokdo

3.1절과 함께 일본 시마네현의 다께시마의 날 조례안이 현의회에 상정되면서 TV에 비취는 독도를 보게 되는 빈도가 잦아졌다. 처음에는 무심하였으나 계속 나타나는 영상을 통하여 그 안에 건축된 경비대의 막사 등 건물들이 너무도 독도의 아름다운 풍경과 괴리되어 있음을 안타까워하였다. 아마도 우리 회원들이라면 누구나 같은 감정을 느꼈으리라 사료된다. 이러한 회원전체의 뜻이 모아진 것일까, 본 협회의 이사회는 조례통과 하루 전 독도 집짓기운동을 전개하기로 의결하고 추후 운동본부 발족과 함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필자의 독도에 대한 것은 맥아더 라인, 평화선 등으로 학교에서 배웠으며, 20여 년 전 한일 어업협정에서 독도가 공동어로구역에 포함됨으로 항간에는 독도를 팔아먹었느니 하는 낭설이 퍼졌을 때, 홀연히 나타난 가수 정광태의 '독도는 우리 땅'이란 유행가로 이어진다.

'울릉도 동남쪽 뱃길 따라 2백리'로 시작하는 이 가사는 위치, 기온, 강수량 등 자연환경에서부터 신라, 조선시대에 이르는 역사적 사실까지 독도의 모든 것을 압축하여 담아 놓은 것으로써 국민가요가 되었으며 학생들에게는 역사교육 자료가 되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독도는 신라 지증왕 때(서기 512년) 이사부가 하슬라(강릉)의 군주로 재임하면서 사자허수아비를 만들어 협박하는 전술로 이를 복속시킨 이후 계속 우리의 영토로 변함이 없었다. 이후 조선시대에는 조선령임을 막부로부터 확인받은 안용복, 울릉도 검찰관 이규원, 1906년 초임 울릉군수 심흥택이 독도를 지켰으며, 홍재현 가문 3대에 이르는 독도사랑은 한국전쟁의 와중에서 호시탐탐 노리는 일본의 야욕을 독도수비대로 격퇴시킨 신화로 내려오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선열들의 가없는 사랑으로 오늘날의 독도가 있음은 대체로 알고 있으나 독도의 자연이나 자원 그리고 설화 등에 대하여는 무지한 면이 많은 것 같다.

독도는 동도와 서도의 큰섬 2개와 33개의 부속도서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면적은 17,600여평이다. 이곳은 북한한류와 쓰시마 난류가 교차하는 지역으로 회유성 어족인 연어, 송어, 대구, 명태, 꽁치, 오징어, 상어 등의 보고이며, 특히 오징어는 인근 대화퇴 어장까지 합치면 전국 생산량의 60%를 차지한다. 그런가 하면 유자망을 이용한 가오리, 광어가 잡히고 홍게와 새우는 통발어선에 제격인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독도는 어장만이 아니라 지하자원으로서도 매혹적인 곳이다. 즉 하이드레이트라가 매장되어 있는데, 이는 천연가스가 얼음처럼 고체화 된 상태로서 천연가스의 수십배에 해당하는 양을 갖고 있으며, 석유자원이 묻혀있다는 지시자원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아직 기술이 완벽하지 못하여 채굴이 쉽지 않으나 에너지 빈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장래 한국의 국부에 대단한 영향을 끼치게 하는 자원이 되는 것이다.

그런가하면 난파당한 조난어부 셋이 이곳에 당도하자 할아버지가 나타나 '먹을 것은 물론 물도 없는 곳이라고 아무것도 줄게 없다' 했으나 계속 구걸하자, 한번 먹으면 100일을 견딜 수 있는 사과모양의 과일을 주고 울릉도까지 데려다 주었다는 아름다운 전설 등이 전해오기도 하는 곳이다.

그 동안 독도에 쏟아 부은 사랑들은 여러 계층에 다양하게 존재하였다. 독도사랑회, 독도가꾸기모임, 독도연구보전협회, 독도해양수산연구회 등 10여개의 모임이 결성되어 활동 중에 있고 독도에 대한 노래도 5곡이나 된다. 이렇게 직업과 취향에 따라 각계각층에서 독도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협회의 독도집짓기운동은 독도와 우리 모두에게 가장 어울리는 사업이라 사료된다. 이제 이를 위한 목적, 기간, 체제 및 조직, 자금소요 산정과 확보 등 예산계획, 관계기관과의 협조 및 법률적 문제, 설계에서 완공까지의 제반사항과 과정 등은 향후 발족될 독도집짓기운동본부에서 세밀히 작성하여 실천할 것이나 이에 앞서 몇 가지 원론적인 것에 대하여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운동의 대상을 우리협회만으로 국한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주관하되 학회와 건축가협회까지 범위를 넓힐 것인가 또는 그 이상으로 할 것인가를 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건축의 범위이다. 독도는 현재 독도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천연기념물 336호이다. 그러나 문화재관리청은 일반인의 관광을 인원수만 제한할 뿐 자유롭게 허용할 것이라 하였다. 따라서 현재 독도 경비 등을 위하여 건축된 기존 건축물과 주택에 대하여 이를 독도의 경관에 맞게 다시 설계할 것인지, 관광객들을 위한 휴게 내지 전망시설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건축이 될 것인지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작품은 국제현상을 통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건물과 신축건물 모두가 가능하다면, 동도와 서도 중 민간주택이 있는 서도부분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실효지배로나 한국의 영토임은 명명백백하다. 그러나 국제정세는 이익을 좇아가고 국력이 강한 곳으로 힘이 쏠리게 되어 있다. 현재도 미국 등 2차대전 전승국들은 당연히 우리 손을 들어주어야함에도 중립의 위치에 서있으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미국 CIA 보고서에 영향을 받는다는데 그조차도 우리에게 유리한 것이 없다는 매스컴들의 보도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독도의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주어진 환경을 최대한 살리면서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것을 세계의 건축가들과 건축을 전공하는 젊은이들에게 알리는 일일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현상금도 많이 걸고 UIA나 ARCASIA를 최대한 이용할 필요가 있겠다.

가수, 해양수산학자, 사진가 등 전공과 직업에 따라 또한 일반국민들은 그들대로 사랑으로 독도를 지키고 있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이 부여한 건축사로서 모두의 지혜를 모아 독도와 함께할 시리도록 아름다운 건축을 창조하여야 한다.

돌아오는 4월 4일 독도를 방문하는 한국 시인 100명을 대표하여 지은 1행시는 독도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

독도 바위를 깨면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

우리는 외친다.

독도의 건축에 한국인의 혼을 담는다.